

국적불명 배달음식 '찜찜'

보쌈·피자·족발 등 원산지표시 안돼 소비자들 불안

평소 야근 때문에 야식 등 배달음식을 자주 시켜 먹는 회사원 최모(40)씨는 최근 찜찜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

광주시내의 한 아시업소에서 저녁 식사로 보쌈을 시켜 먹었지만, 음식 용기와 포장을 살펴봐도 재료의 원산지 표시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시민들이 원산지 불명의 음식을 계속 먹는데도 행정당국은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고 푸념했다.

지난 9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원산지 표시 제도가 배달음식에 까지 확대 시행돼야 한다는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닭고기를 재료로 사용하는 배달음식의 경우에는 지난 해 8월 11일부터 원산지 표시제 확대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문제는 피자, 족발, 보쌈, 탕수육, 돈

가스 등 대표적인 배달음식들은 제대로 표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 등 일부 자체체는 자율 사항이나 피자에 까지 ‘원산지 자율 표시제’를 도입해 권고 시행하고 있다.

광주의 한 중국 음식점 업주는 “배달음식도 소비자에게 원산지 정보를 알려야 한다는 데는 공감한다. 그러나 의무사항도 아닌데다 중화요리 특성상 식재료가 한 두 가지가 아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 결과 대형프랜차이즈 업체를 비롯한 다수의 업체가 자율적으로 원산지 표시에 동참하고 있다. 배달피자의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은 피자의 주 재료로 써 축산식품인 치즈,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이며, 표시방법은 배달상자, 홍보 전단지, 영수증 등에 소비자가 원산지를 알아 볼 수 있

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지역의 영세 배달음식업체들은 자율 사항이나 보니 원산지 표시제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광주의 한 중국 음식점 업주는 “배달음식도 소비자에게 원산지 정보를 알려야 한다는 데는 공감한다. 그러나 의무사항도 아닌데다 중화요리 특성상 식재료가 한 두 가지가 아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관계자는 “최근 피자·족발 등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는 민원이 따르고 있다”며 “소비자에게 정확한 원산지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서는 배달 음식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인쇄문화 특별전
를 찍어내고 있다.

3일 광주시 남구 시직도서관 작은 갤러리에서 개막한 ‘직지·백운화상초록 불조직지심체 요절’과 함께하는 옛 인쇄문화 특별전’에서 어린이들이 금속활자본에 먹물을 묻혀 글자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산로 일방통행 해제해 달라”

송정지구 상인들 “상권 죽인다”… 왕복 2차선 요구

“광산로의 일방통행을 해제하고, 왕복 2차선을 조성해 버스도 운행할 수 있게 해 달라.”

광주시 광산구 송정지구 상인들이 광산로(송정역 ~ 송정파출소역) 1.3km 구간 중 백제약국 사거리 등 일부 구간의 일방통행 해제를 각계에 호소하고 있다.

광산로변 상가·점주들은 “일방통행로의 지속과 훌·짝 정차제 시행은 유동인구 증가를 기대할 수 없어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며 “이 같은 조치가 극심한 불황에 시달리고 있는 상권을 살리는 한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광산구청 인근에 위치한 삼가의 경우 구청 공무원들의 이용이 많아 사정이 낫지만 그나마 미미한 실정이다. 광산로 구간 중 백제약국 사거리 ~ 송정 파출소에 이르는 지점의 50여 점포 주인들은 일대도 어려워 문을 닫아야 할 처지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일부 상인들은 경영난을 겪고 있다.

■ 광산구 일방통행 구간



지 못해 이주까지 고려하고 있는 등 도심 공동화현상 마저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지역은 광산구보건소가 10여년 전 이주한 시점부터 경기 침체를 겪어 왔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도심 공동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방로 해제 ▲왕복 2차선 조성 ▲버스 운행 등 다각적인 행정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광산구 관계자는 “지난 해에 경찰서 관계부서에서 일방로 해제에 대해 불리한 통보가 왔다”면서 “행정에서도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기원태기자 wtkeee@

삼성SDS, 나이스 오류 알고도 ‘쉬쉬’

성적오류 사태 키웠다

차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의 개발업체인 삼성SDS가 나이스의 성적 처리 기능에 오류가 발생한 사실을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보다 이를 먼저 인지하고도 소홀히 대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SDS는 지난달 11일 일선 고등학교 교사로부터 퀄센터를 통해 나이스 프로그램에 이상이 있는 것 같다는 민원을 접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나이스를 관리하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오류 사례를 처음 파악한

지난달 13일보다 이틀 앞선 것이다.

이에 따라 삼성SDS가 민원을 접수한 즉시 정부에 보고하고 즉각적인 대처에 나섰더라면 일선 학교의 혼선을 줄이고 사태를 더욱 신속히 수습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 3월 도입된 차세대 나이스는 지난달 중·고등학생의 학기말 내신 성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오류가 나타나 전국 학생 2만명 이상의 성적을 정정해야 하는 등 초유의 혼란을 일으켰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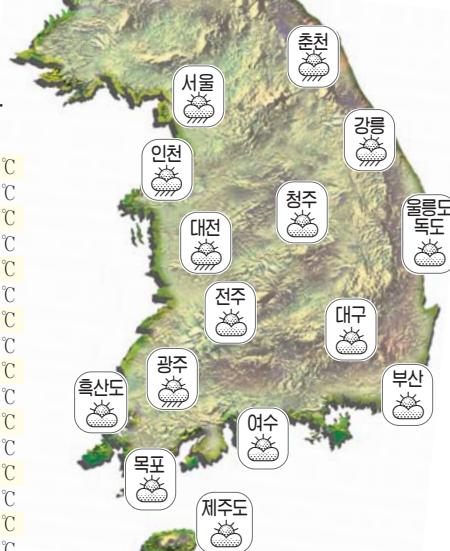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롭 05시 43분 해진 19시 34분

달롭 10시 34분 달진 22시 03분

열대야

낮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광주	구름많고 한때비	25/33°C
목포	구름많음	24/32°C
여수	구름많음	25/30°C
나주	구름많음	24/33°C
완도	구름많음	24/32°C
구례	구름많고 한때비	23/33°C
강진	구름많음	24/32°C
해남	구름많음	24/32°C
장흥	구름많음	24/32°C
순천	구름많음	24/32°C
영광	구름많음	25/32°C
진도	구름많음	24/32°C
전주	구름많음	24/32°C
군산	구름많음	24/32°C
남원	구름많고 한때비	23/34°C
흑산도	구름많음	23/29°C

〈오전〉	비디	풍향	파고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불쾌지수
서해 남부	일비다	남동~남	0.5~1.5m	비디	매우높음	매우높음
남부	만비다	남동~남	1.0~2.0m			
남해 서부	일비다	동~남동	1.0~2.0m			
남해	만비다	동~남동	1.5~2.5m			

〈오후〉	비디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동~남동	1.0~2.0m	목포	10:24
남부	만비다	동~남동	1.5~2.5m	17:45	22:43
남해 서부	일비다	동~남동	1.5~2.5m	여수	05:46
남해	만비다	동~남동	2.0~3.0m	--	18:08

◇주간날씨

날짜	5(금)	6(토)	7(일)	8(월)	9(화)	10(수)
날씨						
최저/최고	25/33	25/32	25/30	25/30	25/30	25/30

보통은 그 자체로 식중독을 유발하지 않으나 유희 1건에서 검출된 병원성 대장균은 창출혈증 대장균으로 복통이나 혈변을 동반한 설사 증상을 일으킨다.

다만, 해당 유희에서 나온 병원성 대장균은 식중독 유발 보고 사례가 없는 유형이라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은 유희를 조리할 때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고 작업 전후에 손과 칼·도마 등을 살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청은 또 여름 휴가철을 맞아 6월 29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지역별로 주로 서식하는 군인 대장균은 환장실 이용 후 손을 씻지 않고 음식물을 만질 때 주로 검출되기 때문에 위생 관리 지표로 사용된다.

/연합뉴스

서울 종로점 OPEN

[국제보청기]

총 5가지 4번출입구 1층(지하철 1호선)
문의전화 : 02) 765-9940

본점 062-227-9940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81-1(이현안과)

충장점 062-227-9970

순천점 061-752-9940

전라남도 순천시 영동 32-5 (중앙시장 앞)

목포점 061-262-9200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 매우 잘 들립니다. * 안보입니다. * 가격이 맘에 듭니다.

국제보청기

www.kjhr.com

2011년 태양광 발전 주택보급 실시!!

아직도, 전기를 돋내고 사용하십니까? 주택용 태양광발전 선착순 한정 접수

태양광이란(Sanyo Module)?
반도체 기술을 이용하여 태양빛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태양광발전(주택용)설치 후 효과?
2KW 용량의 태양광 발전 설치시 월평균 약 240~300KWh의 전력이 생산 가능하고 사용량에 따른 전기요금을 월 최대 약 25만원을 절약 시켜드립니다.

태양광 주택 사업 설치 사례?
일반주택, 공동주택, 국민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설비의 범국민적 이용을 확대하여 관련기업의 안정적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태양광 시장 창출과 확대를 유도하며, 기술발전을 통한 중장기 수출전략 분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보조 50% 확정

기준평균 사용전력량 KWh일때 설치비 청구금액 절감 금액

8만원 (약 4150KWh)일 때	약 1,800원	약 78,200원
10만원 (약 4600KWh)일 때	약 5,600원	약 94,400원
12만원 (약 5000KWh)일 때	약 8,900원	약 11,100원
15만원 (약 5400KWh)일 때	약 16,500원	약 133,500원
20만원 (약 6100KWh)일 때	약 30,600원	약 169,400원
25만원 (약 6800KWh)일 때	약 48,000원	약 202,000원
30만원 (약 7400KWh)일 때	약 72,000원	약 228,000원

*기상 여건에 따라 전력 생산량이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음.

태양광 주택 보급 상담문의 ☎ 062-512-1180 / H.P 011-659-7001

<div data-bbox="500 640 654 65